휴대폰 판매점 약정 불이행 "이통사·대리점 50% 책임"

40대 소비자 김 씨는 지난해 9월 이동통신사의 재위탁판매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동통신사의 직영판매점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신규 가입·개통시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 대납, 신규 단말기 대금 및 가입비 무료 등 총 138만9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조건이 좋아 개통 계약을 체결했으나 판매점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김 씨는 이동통신사와 판매점에 보조금 지원 약정의 이행을 청구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휴대전화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뒤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동통신사와 판매점은 지원 약정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판매점이 이통사의 직영이라고 말했고, 해당 판매점에서 한 달 간 김 씨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1500여 건이나 발생해 이통사와 대리점이 판매점의 보조금 지원 약정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만큼 이통사와 대리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이통사는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여러 차례 규제를 받았음에도 대리점과 판매점 단속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원회는 소비자도 약정 보조금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한도인 27만원을 과도하게 초과한데다, 보조금 지급 방법이 유효한 지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잘못이 있어 이통사와 판매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이자 상품 판매의 위탁인에 해당하는 이통사에 최소한의 판매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SW, 수능 선택과목 검토

미래부 'SW 혁신전략' 보고

소프트웨어(SW)를 다루는 '정보' 과목을 초·중등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이를 수능 선택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까지 소프트웨어산업 생산액을 지금(2012년 48조원)의 2배 이상인 118조원 규모로 키우고, 신규 인력을 10만명 추가해 35만명을 공급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혁신전략'을 최근 발표했다.

소프트웨어 전공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전공인력을 늘리고, 대학 내 소프트웨어연구센터를 현재 29개에서 2017년 5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미래부와 교육부는 정보 과목의 정규화 및 수능 반영을 검토하기 위해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우선 정보 과목을 선택한 중·고교 수를 올해 각각 700개·353개에서 2017년 1000개·547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누구든 쉽게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장을 지난 8월 온라인에 개설한 데 이어 내년에는 TV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로 했다.

고교생과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의 능력을 향상하는 정책도 펼친다. 기존의 정보고교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로 전환하고, 대학 교과과정을 기업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중소기업 직원들에게는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정부는 또 국방 분야에서 국방 무기체계 개발 기획단계에서부터 국산 소프트웨어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우주 분야 정지궤도 위성용 소프트웨어 국산화 비율도 2017년까지 90%로 높이고, 인터넷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들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비의 3.2% 수준인 소프트웨어 분야 비중도 6%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인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 공공 정보화사업 시행업체의 하도급 규모를 제한하고,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단계별 지원책도 민관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구매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유지관리 대가를 현재 구매가의 8%에서 2017년까지 15%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 정보통신기술 발전 4년 연속 1위

한국이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 평가에서 4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ICT 발전지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세계 15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해 국가 간 ICT역량을 비교·분석하는데 활용하는 지표다. ICT 접근성·이용도·활용역량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한국은 ICT 활용역량 1위, 이용도 2위, 접근성 11위 등 전 부문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체 지수값도 8.57점으로 지난해 8.51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세부 지표를 보면 인터넷 접속가구 비율 1위,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건수 1위, 고등교육기관 총 취학률 1위,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건수 5위, 인구 100명당 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건수 5위 등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 비율 15위, 컴퓨터 보유가구 비율 21위 등 일부 지표는 순위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스웨덴과 아이슬란드가 각각 2·3위를 차지했고,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네덜란드가 뒤를 이었다. 아시아 국가로는 홍콩(10위)·일본(12위)·마카오(14위)·싱가포르(15위)가 포함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호남 스마트융합 컨퍼런스' 17일 DJ센터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과 최신 스마트 콘텐츠 트렌드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13 호남 스마트융합 컨퍼런스'가 오는 17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신관 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다. '소통·공감·창조'를 슬로건으로 ▲정부 3.0시대 SW정책 및 스마트 콘텐츠산업과 전망 ▲ICT 스마트 융합 콘텐츠의 트랜드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한다. 문의 062-610-2422.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초보자도 척척 '한컴오피스 2014'

(주)한글과컴퓨터는 10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 소프트웨어인 '한컴오피스2014'를 출시했다. 한컴오피스2014는 지난 24년간 국내 사용자들에게 사랑받아온 워드프로세서인 '한컴오피스 한글'에 더해, 스프레드시트인 '한컴오피스 한셀',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인 '한컴오피스 한쇼', '한컴사전', '한컴타자', '한컴 개인정보탐색기'를 포함한 오피스 풀 패키지이다.

/연합뉴스

탄저균 감염 조기 진단

광주과기원연구팀, 고감도 감지센서 개발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진이 탄저균 감염을 단시간에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응용하면 생화학테러 등 비상상황에서 탄저균 감염 여부를 초기에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양성 교수 연구팀과 미국 캘리포니아공대 제임스 히스 교수 연구팀이 아주 낮은 농도의 탄저 방어항원을 단시간에 측정할 수 있는 소형 센서를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탄저 방어항원은 인체에 감염된 탄저균에서 생성되는 독소 중 하나다.

기존 센서는 탄저 방어항원과 결합하는 항체(특정 항원에 대응해 만들어지는 면역단백질)를 사용해 탄저 방어항원의 농도를 측정하고, 탄저균 감염을 판단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센서는 단백질의 일종인 항체의 특성상 온도에 민감하고 감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양 교수팀이 공동 개발한 센서는 항체보다 구조가 단순한 합성 펩타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변해도 변성확률이 낮다. 이 센서는 낮은 농도(약 2 pM)의 방어항원도 포착한다. 이는 미국 국방부가 제시하는 탄저병 진단값보다 감도가 500배 좋은 수준이다. 캘리포니아공대 연구팀이 방어항원만을 선택적으로 포착하는 펩타이드를 개발했고, 광주과기원 연구팀은 이 펩타이드를 금나노입자 표면에 배열함으로써 전기화학 기반 센서를 완성했다.

이 연구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도약연구)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결과는 나노분야 국제학술지인 'ACS 나노' 온라인판에 실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정상 "급매"
순천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 대지148평, 건물 480평, 신축건물
▶ 5층 건물(1층 82평, 2~5층 각 100평)
▶ 감정가/시세 – 23억원
▶ 임 대 – 보증금 3억원에 월 1,400만원 예상(임대중)
▶ 대 출 – 14억원(이자 월 560만원)
▶ 매매가 – 22억원
▶ 수 입 – 5억원 투자에 월 840만원
주인직매 010-4667-9300

경매 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모십니다.
단독/공동투자 가능하고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주1회 3개월 스터디 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본사가 결정합니다.
주식회사 오천경매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

오천경매 대부
광주 동구 제029호
(동구청 경제과 062-608-2504)
월3.25%이하, 연39%이하
(연체 및 추가비용 없음)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2001호
돈
놀분/쓸분!
문의
010-3605-5000